

아시아 몬순農業經濟에 있어서 工業化의 條件: 「M-사이클」假說을 중심으로

崔 洋 夫*

<目 次>

- I. 問題의 提起
- II. 아시아 몬순農業經濟와 「M-사이클」
- III. 아시아 몬순農業經濟에 있어서 工業化의 條件
- IV. M-사이클假說의 韓國 經濟에 대한 含義
- V. 맺는 말

I. 問題의 提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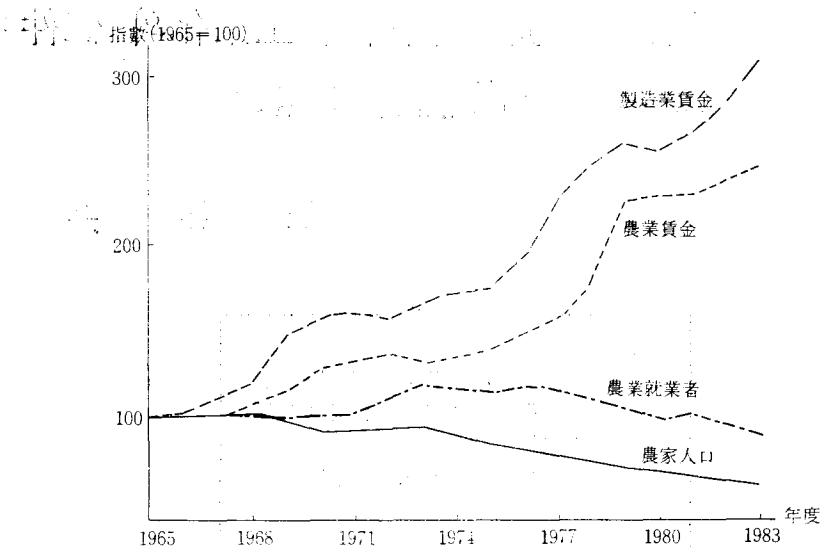
韓國經濟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착수이후 지난 20여년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農業・農村依存經濟에서 工業・都市依存經濟로의 급격한 構造變革을 이루어 왔다. 그러한 구조변혁의 과정에서 한국경제에 나타난 많은 새로운 經濟現象 또는 經濟問題들 가운데서 특히 經濟學의 또는 理論的 關心을 끌고 있는 것의 하나는 經濟成長의 初期段階에서 부터 農業部門과 製造業部門에서 동시에 進行되어온 勞働者 1人當 實質賃金の 급격한 상승에 關한體系의인 說明이다.¹⁾

1965~83년간 제조업 종사자 1인당 평균임금은 <그림 1>과 같이 약 3.0배, 농업임금은 같은 기간동안에 약 2.4배씩 실질적으로 상승하였다. 한국경제에 있어서 工業化의 初期段階에 해당하는 1965~69년 간에 제조업임금은 연평균 9.7%, 농업임금은 3.4%의 본질적인 상승을 보였고, 1975~83년간에는 각각 연평균 7.5%씩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이 論文은 韓國經濟學會의 「1984年度 定期學術大會」(1985. 2. 22, 서울)에서 발표되었던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논문을 읽고 좋은 조언을 주신 宋大熙博士(KDI)에게 감사드린다.

1) 平均的 意味에서 實質賃金上昇率을 의미하며 絶對的인 賃金水準의 문제는 이 論文의 목적 밖에 있다.

〈그림 1〉 韓國經濟에 있어서 製造業部門과 農業部門의 實質賃金の 上昇, 1965~83.



區 分	1965	1967	1969	1973	1975	1979	1983	年平均 變化率		
								1965/69	1969/75	1975/83
製造業賃金	100.0	108.9	144.6	163.8	172.9	261.1	308.9	9.7	3.0	7.5
農業賃金	100.0	101.4	113.5	131.1	137.9	224.0	244.1	3.2	3.3	7.4
農家人口	100.0	101.7	98.6	92.6	83.8	68.8	59.9	△0.4	△2.7	△4.1
農業就業者	100.0	100.0	100.3	115.8	112.8	101.6	89.7	0.1	2.0	△2.8

거의 같은 수준에서의 높은 實質賃金上昇率을 기록하고 있다.

왜 韓國經濟에서는 工業化의 初期段階에서부터 農業部門과 製造業部門에서 급격한 實質賃金の 上昇이 나타났는가?

이상과 같은 의문의 제기는 지난 20 여년간의 “經濟開發이……勞動의 無制限의 供給(Unlimited supply of labor)의 源泉이 되는 過剩勞動(潛在失業)에 바탕을 둔 單純勞動을 활용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大韓商工會議所, 1982, pp.119~120) 이었고, 그와 같이 農業·農村部門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過剩勞動力은 實質賃金の 上昇없이 工業·都市部門에 供給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韓國經濟學界의 일반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1960 년대초에 있어서 R. Nurkse 의 잠재실업이나 W.A. Lewis 의 無制限의 勞動供給의 概念은 韓國經濟를 인식하는 기본적인 이론들이었다. 朴昇(1977, p.137)은 “루이스의 모형은 실로 한국과 같은 나라

아시아 몬순農業經濟에 있어서 工業化的 條件: 「M-사이클」假說을 중심으로 93

에서는 매우 중요하며 정확히 적중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은 바로 이 모형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까지 적고있다.

그렇다면 韓國經濟成長의 初期段階에서부터 나타난 實質賃金の 上昇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無制限의 勞動供給基盤이 일찍부터 고갈되었기 때문인가? 특히 1965~73년간의 農業就業者の 절대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農業賃金の 실질적인 상승이 나타난 것은 무엇 때문일까? 農業部門에서 農業勞動力의 절대부족이 지적되면서도 다른한편으로는 아직도 農業部門에 유희노동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韓國經濟의 현실에 나타난 이상과 같은 現象과 韓國經濟學界가 당연히 옳은 것으로 받아 들여온 無制限의 勞動供給과 잠재실업이라는 이론들간의 괴리는 중요한 經濟學的 關心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科學的 知識으로서 經濟理論이 추구하는 理想을 현실의 經濟現象에 대한 事實的 說明과 그 설명이 經驗的 資料에 의해서 反證可能할 수 있는 事實的 敘述에 있다고 한다면(Karl Popper, 1962, p.114), 韓國經濟學은 韓國經濟의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經濟現象을 합리적으로 說明하고 理論化시킬 수 있어야 한다. 導入理論의 경우 그것은 어디까지나 韓國經濟現象을 설명하고자 하는 假說的 이론들에 불과하며 그것이 얼마나 한국경제현상을 사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는 經驗的 資料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崔洋夫, 1983).

이 論文은 이상과 같은 問題意識에서 韓國經濟에 있어서 工業化的 初期段階에서부터 나타나 지난 20여년간 급격히 진행되어 온 實質賃金の 上昇이라는 經濟現象에 대한 理論的 說明을 시도한 것이다.

이 論文은 韓國과 같은 아시아 몬순農業經濟에는 「M-사이클」이라고 부를 수 있는 農業勞動力利用을 支配하는 一般現象이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M-사이클의 구조적 조정없이 진행되는 農業勞動力의 無制限的 減少는 農業賃金の 實質的인 上昇없이 不可能하다”는 理論的 假說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論文이 제시하는 이론적 체계를 「M-사이클」假說이라 부를 수 있다. 이 論文은 먼저 韓國과 같은 아시아 몬순農業經濟에 존재하는 「M-사이클」을 설명하고 「M-사이클」을 전제로 한 아시아 몬순農業經濟에 있어서 工業化的 條件을 설명한 다음, 마지막으로 이와같은 「M-사이클」假說이 한국경제의 實質賃金 上昇에 대해서 갖는 의미를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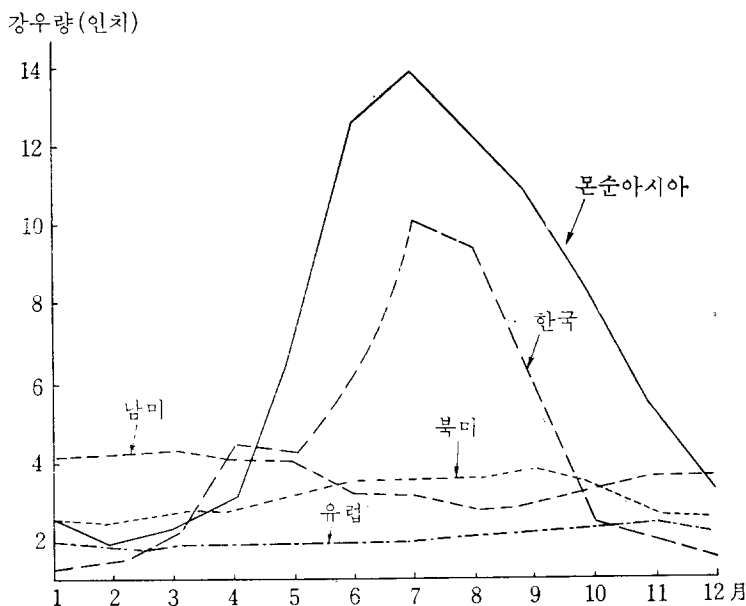
Ⅱ. 아시아 몬순農業經濟와 「M-싸이클」

1. 아시아 몬순農業經濟의 一般模型

아시아 몬순農業經濟의 기본성격은 쌀農業生産이 지배하는 畝作農業經濟라고 할 수 있다. 몬순農業經濟란 몬순기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농업경제를 뜻하며, 몬순 기후는 〈그림 2〉와 같이 연중 강우량이 여름에 집중하는 일반성을 가진 기후를 말한다. 이와같은 기후적 성격을 가진 아시아 몬순지역에서는 계절성을 띤 강우조건 때문에 쌀중심의 畝作農業이 발전되어 왔으며 연중 균일한 강우량의 분포를 가진 서구와 미주의 비몬순지역에서는 밀, 보리 등을 중심으로 한 田作農業이 발전되어 왔다.

韓國은 아시아 몬순農業經濟의 代表的인 例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연평균 강우량은 1,282.7mm 이나 5~9月 사이에 전체의 69%가 집중되고 있고 특히 6~8月 사이에 전체의 50%가 집중되어 있다.

〈그림 2〉 연중 강우량의 地域別 패턴



資料: Harry T. Oshima (1983, p.5)에서 再引用. 韓國資料는 筆者追加.

쌀農業은 강우량의 계절적 집중과 제초문제로 일정한 이양기를 가지고 있어 생산과정에서 다른 발작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많은 勞動力을 필요로 하는 勞動集約的 農業이다. 그 뿐만 아니라 발작물에 비하여 單位面積當 생산량이 높기 때문에 높은 人口扶養力을 가지고 있다. 쌀농업이 많은 노동력을 필요하고 동시에 높은 人口扶養力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시아 몬순 農業經濟를 人口調密의 經濟로 만드는 기본요인이 된다.

工業化가 시작하는 1960년대 韓國經濟를 農業・農村依存의 經濟라고 규정할 때 한국경제는 몬순기후의 영향 속에 쌀농업의 支配를 받는 몬순畝作農業經濟이었다고 일반화할 수 있다.

2. 「M-사이클」의 存在

몬순畝作農業經濟에 있어서 農業勞動力은 쌀農業生産의 週期의 지배를 받는다. 여기에서 週期란 특히 이양과 수확의 주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農家の 평균적인 總農業投入 勞動期間중 쌀農業에 투입되는 勞動時間이 35~40%를 점하고 있으며 계절적으로는 5, 6, 7月과 10, 11月에 農業勞動時間의 45~55%가 쌀農業에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정리하면 <표 1>,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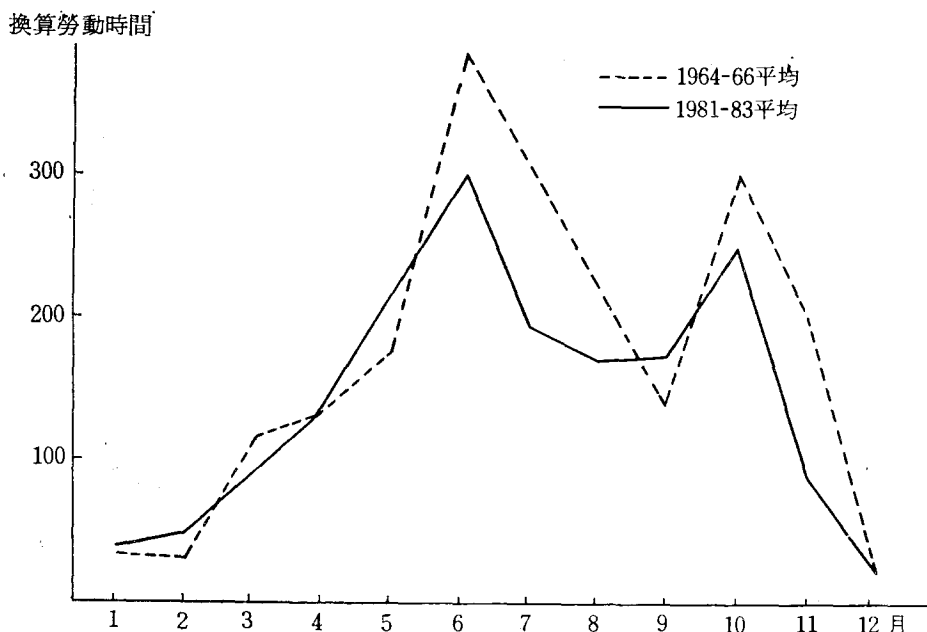
<표 1> 農家の 月別 農業投入 勞動時間 (單位: 換算時間, %)

月別	1964~1966(平均)			1981~1983(平均)		
	쌀農業(A)	總農業勞動(B)	A/B	쌀農業(C)	總農業勞動(D)	C/D
1	0.52	29.98(17.2)	1.7	0.34	34.42(23.6)	1.0
2	0.89	28.98(16.6)	3.1	0.85	43.53(29.9)	2.0
3	11.55	121.99(70.1)	9.5	8.99	95.70(65.8)	9.4
4	44.04	135.33(77.7)	32.5	48.58	137.40(94.4)	35.4
5	82.65	177.48(101.9)	46.6	103.52	222.78(153.1)	46.5
6	179.93	391.08(224.6)	46.0	137.11	300.09(206.5)	45.6
7	174.56	312.85(179.7)	55.8	60.53	182.89(125.7)	33.1
8	61.73	211.92(121.7)	29.1	34.54	159.46(109.6)	21.7
9	26.68	130.18(74.8)	20.5	51.58	162.64(111.7)	31.7
10	141.57	302.26(173.6)	46.8	139.46	252.22(173.3)	55.3
11	93.26	198.13(113.8)	47.1	28.04	111.49(76.6)	25.2
12	7.30	45.17(25.9)	16.2	0.68	43.40(29.8)	1.6
計	826.72	2,089.07	39.6	614.23	1,746.53	35.2
(平均)	68.89	174.09(100.0)		51.18	145.54(100.0)	

資料: 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에서 作成.

〈표 1〉과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특징의 하나는 農業勞動 利用의 계절성이다. 總農業投入 勞動時間의 44.4%가 5, 6, 10 月の 3 個月에 집중되고 있으며, 대체로 12 월부터 다음해 3 월까지 4 個月동안은 月平均 勞動時間의 20~70% 수준밖에 투입되지 않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흔히 농번기와 농한기라고 부르는 農業勞動力利用의 계절성이 보편적 현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3〉 農家の 月別 農業投入 勞動時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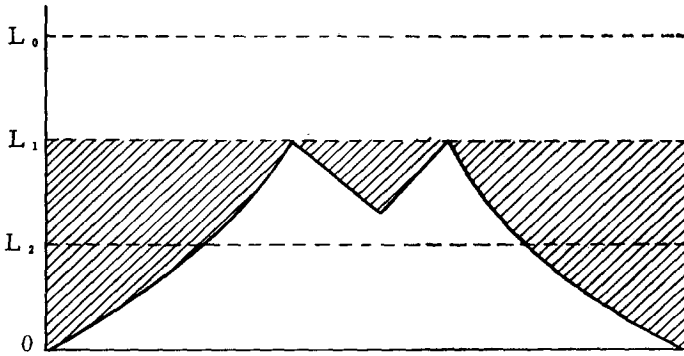
이 論文은 몬순農業經濟의 쌀農業이 지배하는 農業勞動需要의 계절성을 특히「M-싸이클」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쌀농업에서 높은 強度(intensity)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2 차례의 농번기가 그리는 曲線이 M字와 비슷하고 또 그것이 몬순(Monsoon) 畝作農業經濟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의 하나라는 점에서 부친 이름이다.¹⁾ 〈그림 3〉에서 「M-싸이클」의 存在는 經驗의으로 쉽게 확인 된다.

3. 「M-싸이클」의 意味

韓國과 같은 몬순農業經濟에 있어서 「M-싸이클」의 존재는 農業勞動力의 利用에

1) 農業의 경우 파종과 수확이라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한 모든 작물생산에는 「M-싸이클」이 나타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몬순畝作農業經濟에서 M-싸이클이 갖는 의미는 이앙기와 수확기를 중심으로 단기 간내에 요구되는 농업노동력수요의 높은 強度에 있다.

〈그림 4〉 몬순農業經濟에 있어서 M-사이클의 一般化



L_0 : 農村의 부존 農業勞動力
 L_1 : 농번기의 必要農業勞動力
 L_2 : 月平均 必要農業勞動力

관한 다음과 같은 一般化를 가능케 한다.

1) 몬순畝作農業經濟에는 「M-사이클」로 인한 季節性을 가진 農業勞動力需要가 존재한다.

2) 〈그림 4〉에서와 같이 몬순畝作經濟가 보유하고 있는 勞動量을 L_0 라고 할 때 이 經濟에는 $L_0 L_1$ 으로 표시되는 「絶對的 潛存失業」과 L_1 이하의 빗금친 부분으로 표시되는 「季節的 潛存失業」이 공존하고 있다.

3) 절대적 잠재실업상태에 있는 노동력은 農業生産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非農業部門으로 流出 可能한 勞動力を 의미한다.

4) 그러나 계절적 잠재실업은 농번기의 절대적인 勞動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존재해야 하는 勞動力이며 이러한 노동력을 「必要準備勞動力」이라고 부를 수 있다. 必要準備勞動力의 規模는 몬순畝作經濟의 技術的 條件에 의하여 決定된다.

5) 따라서 몬순畝作農業經濟에 있어서 農業勞動力의 季節적 유향화는 불가피한 經濟현상이며, 이 때문에 農業勞動力의 완전고용을 위한 多角營農 또는 農外活動은 중요한 味意를 갖는다.

이상과 같은 M-사이클의 구조적 내재화는 몬순畝作農業經濟에 있어서 工業化의 추진에 따른 農業勞動力의 非農業部門으로의 流出이 가져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經濟現象에 대한 豫測을 가능케 한다. 즉 만약 몬순畝作農業經濟의 부존 勞動量이 L_1 水準에 있는 경우 M-사이클의 完化없이 進行되는 農業勞動力의 減少는 농번기

에 있어서 農業勞動力의 絕對不足을 초래하며 農業賃金の 上昇을 촉진시킨다. 다시 말하면 “부존 勞動量이 L_1 水準에 있는 몬순畝作農業經濟에 있어서는 M-사이클에 變化가 없는 한 農業賃金の 上昇없이 農業勞動力의 無制限의인 非農業部門으로의 供給은 不可能하다” 이것은 몬순畝作農業經濟에 있어서는 農業勞動力의 平均 또는 限界生産力의 향상이 없어도 農業勞賃의 實質的인 上昇이 가능함을 의미하며, 農業勞動力에 대한 市場價格이 勞動의 限界生産力과 無關하게 季節的으로 限界生産力보다 높게 또는 낮게 形成될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몬순農業經濟에 있어서 절대적 또는 平均的 意味의 잠재실업보다는 勞動需要의 季節的 不均衡을 전제로 한 계절적 잠재실업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Ⅲ. 아시아 몬순農業經濟에 있어서 工業化의 條件

1. 工業化를 위한 農業勞動力 供給의 條件

일반적으로 工業化를 農業勞動力의 非農業部門으로의 再配分過程이라고 할 때는 몬순畝作農業經濟가 지배적인 사회에 있어서 工業化를 위한 農業勞動力의 工業部門으로의 供給은 M-사이클에 變化가 없는 한 오히려 工業化를 制約하는 要因이 될 수 있다. 그것은 農業勞動力의 減少가 工業化의 進행에 따라 〈그림 4〉의 L_1 이하로 내려갈 때 농번기의 절대적인 농업노동력 부족을 일으키며, 이로 인한 농업노임의 상승은 불가피하게 農產物生産費의 上昇을 유발시켜 工業化를 위한 本源的 資本蓄積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다른한편으로 農業部門에 있어서 實質農業賃金の 上昇은 都市・工業部門에서의 最低賃金水準의 決定에 영향을 미치고 賃金上昇에 대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都市・工業部門에서의 賃金水準(W_u)은 적어도 農業賃金水準(W_R)에 통근비용 또는 都市生活에의 적응을 위한 최소한의 生産費(α)를 포함하는 水準以上の 것($W_u \geq W_R + \alpha$)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몬순畝作農業經濟에 있어서 工業化를 위한 農業勞動力의 無制限의 供給은 M-사이클의 支配 때문에 制限의이 될 수 밖에 없으며, M-사이클의 절대적인 완화와 같은 農業經濟의 構造改善이 工業化의 進행과 더불어 추진되지 않은 일방적인 工業化의 추진은 결국 工業化 그 자체의 원만한 추진을 제약하는 자기모순에 빠져들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그와같은 工業化의 制約, 즉 賃金上昇에 대한 압박과 農產物價格의 上昇의

問題가 해결될 수 있는 方案은 國內生産보다 값싼 農産物의 海外供給이다. 이 경우 農産物의 海外供給은 國內農業의 정상적인 발전을 억압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효과는 農産物의 國內供給을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는 결국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崔洋夫, 1985, pp. 79~83).

이렇게 보았을 때 몬순畝作農業經濟에 있어서 工業化의 지속적이고 원만한 추진을 위한 條件은 결국 農業經濟에 존재하는 「M-사이클」의 구조적 완화와 이를 가능케 하는 勞動生産性의 向上이며, 農業機械化의 동시적 추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몬순畝作農業經濟에 있어서 부존 勞動量은 畝作農業이 갖는 人口扶養能力의 한계 때문에 〈그림 4〉의 L_0 보다는 오히려 L_1 水準에 접근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工業化를 위한 農業勞動力의 無制限의 供給이 可能할 수 있다는 Lewis의 模型은 成立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지속적인 공업화를 위해서는 위험스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2. 몬순農業經濟에 있어서 工業化의 段階

「M-사이클」이 구조적으로 支配하고 있는 아시아 몬순畝作農業經濟에서 工業化는 다음과 같은 2段階의 過程을 밟는다고 생각된다.

〈第1段階: M-사이클에 適應하는 工業化 段階〉

第1段階는 資本主義的 工業化가 本格的으로 着手되기 以前의 農業·農村依存의 經濟에 있어서 工業化를 의미한다. 이 段階에 있어서 工業化는 기본적으로 「M-사이클」의 支配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勞動需要가 M-사이클과 補完性을 갖는, 바꾸어 말하면 「M-사이클」을 갖는 小規模의 家內手工業이나 또는 中小企業을 주축으로 하는 工業化의 段階라고 볼 수 있다. 이 때의 공업화는 특히 농촌에서 농한기에 유향화되는 계절적 잠재실업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家內手工業 또는 中小企業중심의 공업화는 本格的으로 추진되어 자본주의적 공업화를 위한 예비단계의 공업화적 성격을 지닌다. 특히 그러한 가내수공업이나 중소기업은 본격적인 공업화에 대비한 숙련노동자의 대량적 육성이란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M-사이클」이 지배하는 몬순畝作農業經濟에 있어서 農家の 경우 농한기의 유향노동력의 생산적 이용은 바로 그와 같은 家內手工業이나 中小企業과 비교적 용이하게 연결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農家の 農外活動과 그로 인한 兼業農의

存存는 畚作農業經濟에 있어서는 構造化된 보편적인 현상의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다.

〈第2段階: 「M-사이클」을 克服하는 工業化 段階〉

第2段階는 中小企業의 育성과 地方的 分散속에서 進行되어온 第1段階의 工業化를 바탕으로 蓄積된 資本에 의한 本格的인 資本主義的 工業化가 진행되는 段階를 의미한다. 이 段階에 있어서 工業動를 위한 勞動需要는 급격히 增大한다.

따라서 「M-사이클」의 構造的 完화를 위한 勞動節約의이거나 勞動代替의인 農業技術의 發展과 더불어 勞動生産力의 向上은 農業勞動力的 工業部門으로의 원활한 供給을 可能케 한다.

특히 農業機械化라는 農業技術革新은 工業化를 촉진시키는 경제적 기폭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M-사이클」의 구조적 完화는 거의 無制限의이라고 할 수 있는 農業勞動力的 工業部門으로의 供給을 農業賃金의 上昇이란 압박을 주지 않으면서도 가능할 수 있게 하여 주기 때문이다.

第2段階의 「M-사이클」을 克服하는 工業化는 農業機械化를 위한 농기계산업의 육성과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를 필요로 하며 農業部門에서의 획기적인 勞動生産力 向上을 전제로 한다. 農業勞動生産力의 向上속에 진행되는 勞動力的 순조로운 供給은 工業化를 위한 本源的 資本蓄積을 더욱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第2段階에 있어서 「農工併進」은 工業化를 위한 勞動力的 部門間 再配分과 利用이란 관점에서 農業發展과 工業發展이 상호보완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農業部門과 工業部門의 구조적 연계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야말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이 아닐 수 없다.

Ⅳ. 「M-사이클」假說의 韓國經濟에 대한 含蓄

그렇다면 「M-사이클」假說은 韓國의 경우와 같이 工業化의 「初期段階」에서부터 농업부문과 공업부문에서 동시에 급격하게 進行되어온 實質賃金의 上昇에 대해서 어떠한 說明力을 갖고 있는가?

韓國經濟에서 실질임금의 급격한 상승의 진행은 아시아 몬순畚作農業經濟에 작용하고 있는 「M-사이클」이 무시된 채, 그리고 農業發展이 工業化 그 자체를 위해서 갖는 의미가 무시된 채 無制限의 勞動供給이 農業部門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Lewis

模型의 無批判的 適用속에서 大都市 集中的이고 大企業 中心的인 一方的인 工業發展이 가져온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아시아 몬순農業經濟의 일반적 성격이 무시된 채 추진되어 온 分極的 工業化는 業勞動力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으나 M-사이클의 지배는 농업노동력의 절대부족을 심화시키면서 급격한 농업임금의 상승을 가져왔다. 이로 인한 農產物價格의 불가피한 상승을 農產物의 海外供給으로 압박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들은 결국 農家 濟濟에 대한 과중한 勞賃負擔, 그리고 負擔能力이 없는 상태에서 절대적인 농업노동력 부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農業機械化의 추진과 그로 인한 기계부담을 內在化시켰으며 農家負債의 累積이라는 결과를 발생시켜 왔다.

다시 말하면 「M-사이클」이라는 農業賃金上昇을 지속적으로 촉발시키고 있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예를들면 획기적인 農業機械化에 대한 投資와 같은) 방치된 상태에서 大企業, 大都市 편향적이며 對外指向的인 工業化戰略은 部門間, 階層間, 地域間의 所得不均衡을 더욱 深化시키고 公平한 分配에 대한 社會的 政治的 要求를 증대시키고, 그로 인한 賃金引上에 대한 압박을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M-사이클」의 관점에서 볼 때 韓國經濟의 지난 20여년간의 對外指向的인 工業化 戰略은 그것이 갖는 韓國經濟成長에 대한 기폭제로서의 역할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經濟成長을 위한 國內的 條件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대규모 임해공단보다는 중소기업의 내륙형 공업단지의 조성 and 개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집중적인 육성, 일방적인 공업개발이 아닌 農業開發과의 조화, 특히 「M-사이클」의 완화를 위한 農業機械化를 위한 投資의 擴大, 大都市中心의 分極的인 아닌 地方의 中小都市中心의 分散的인 工業化의 推進과 같은 對內指向的인 工業化 戰略의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輸出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國際競爭力의 유지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전략의 전환이며, 새로운 전략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V. 맺 는 말

「M-사이클」假說은 물론 하나의 理論的 假說에 불과하며 앞으로 많은 經驗的 資料에 의해서 檢證되어야 한다. 「M-사이클」假說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 몬순畚作經濟에 있어서 工業化는 「M-사이클」의 支配라는 일반적 성격 때문에 工業化 段階나 方式이 非몬순經濟의 그것들과는 달라야 하며, 특히 분산적이고 중소기업

중심의 공업화를 토대로 하면서 「M-사이클」의 완화를 전제로 한 農業機械化의 本格化와 함께 工業成長 그 자체가 本格的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政策的 含蓄은 한국과 일본, 대만의 工業化 類型에 대한 比較研究의 必要性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일본과 대만이 한국에 비하여 더욱 안정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의 하나는 일본과 대만이 M-사이클의 구조적 완화를 위한 농업기계화를 추진하면서 분산적 공업화를 통하여 농업기계화를 부담할 수 있는 농가의 農外所得基盤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반면, 우리나라의 工業化는 지나치게 農業開發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大企業, 大都市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유추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과 대만은 아시아 몬순畝作農業經濟에서의 工業化의 條件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 왔으나 韓國의 경우는 韓國經濟를 支配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內在的 條件, 즉 몬순畝作農業經濟에서 「M-사이클」의 支配가 무시된 채 西歐的 田作農業經濟의 工業化 方式이 無批判的으로 適用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經濟의 보편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구적 模型에 의존하면서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스스로 경제성장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參 考 文 獻

1. 大韓商工會議所, 『韓國經濟 20年の回顧와 反省』, 1982.
2. 朴昇, 『經濟發展論』 博英社, 1977.
3. 崔洋夫, 「社會科學을 위한 方法論的 決斷」, 金東一 外 『社會科學方法論批判』, 청람, 1983.
4. _____, 「산업발전과 농업의 딜레마」, 『현대사회』, 17, 1985(봄호).
5. Harry T. Oshima, 『The Transition to an Industrial Economy in Monsoon Asia』, ADB Economic Staff Paper, No. 20, 1983.
6. Karl R. Popper, 『Conjecture and Refutation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2.

□ Abstract □

M-Cycle Hypothesis and Conditions for Industrialization in the Asian Monsoon Economy

Yang Boo Cho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be a theoretical attempt explaining conditions for industrialization in terms of supply of agricultural labor to emerging industrial sector in the Asian monsoon economy. For this purpose, this paper introduces what the author termed "M-cycle hypothesis". The term M-cycle is a name for the seasonal labor demand curve for rice production structurally built-in in the Asian monsoon economy. The labor demand is M-shaped with two peaks of rice transplanting and harvesting conditioned by the monsoon rainfall. Under the dominance of M-cycle, even the seasonally unemployed agricultural labor may be viewed as the reserved labor for the peak demand technically necessary for the continuation of rice farming.

Therefore, the M-cycle hypothesis states that under the given conditions of structure and intensity of M-cycle unlimited supply of agricultural labor to the industrial sector is not possible at the same time without raising agricultural wage rates in real term from the early stage of industrialization in the Asian monsoon economy. The significance of M-cycle hypothesis is that it provides a structural condition for industrialization. That is, in order to supply agricultural labor to the industrial sector the built-in structure of M-cycle should be smoothed and adjusted by farm mechanization. Otherwise, the uncritical application of the unlimited supply of labor hypothesis into the Asian monsoon economy for industrialization may be resulted in the rising agricultural wages and supply cost of foods

* Korea Rural Economics Institute

which will eventually delimit industrialization itself.

Therefore it may be concluded that one of the very condition for industrialization in the predominantly rice-centered Asian moonsoon economy is how to successfully reduce the bottleneck of M-cycle and promote farm mechanization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